

# 에너지, 사용자 부담 늘어난다!

재정부, 국제가격 변화 즉각 반영 ... 2010년 3월부터 가스에도 적용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사용자들도 이에 연동해 비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16일 2010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내수가격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내수가격도 내리게 된다.

그동안 서민생활을 고려해 에너지 내수가격을 원가와 연동시키지 않고 공기업 등에서 경영효율화 등으로 흡수토록 해왔으나 관련 공기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국제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아껴 쓰려는 인식도 희박해진다 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6>